

기사 검색



민주노총 뉴스

사회연대

인터뷰

오피니언

사진&영상

기사찾기

노동과세계 > 민주노총

## "전국 비정규노동자들 서울여의도 집결"

노동과세계 | 입력 2007.10.27 12:59



[사진1]

전국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27일 오후4시를 기해 일제히 서울 여의도에 집결한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의장 박대규 현 전국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이하 '전비연')이 주최하고 민주노총이 후원하는 전국 비정규노동자대회가 2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비정규노동자 약 3천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저녁 10시까지 열린다.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는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주관하고 대회 취지에 공감하는 18개 조직과 단체가 공동으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행사를 준비해왔다. 이날 대회에서는 비정규노동자 5대 요구가 선포될 예정이고 향후 대선과 총선을 통해 비정규 요구를 전면화할 예정이라고 전비연은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4시 본대회에 앞서, 전국에서 올라온 1천여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130여 일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인천전기원들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인천에서 오전 11시 집회를 가진 후 국회 앞으로 집결할 예정이다.

또 이랜드·뉴코아·코스콤 등 비정규투쟁사업장들과 비정규노조 조합원 500여명은 (10월27일)5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신촌 이랜드 본사 앞 농성장(서울 광흥창역 2번 출구)에서 오후 2시 집회를 가진 후 국회 앞으로 모인다. 지방 비정규노동자들 또한 대회 참석을 위해 민주노총 지역본부, 각 산별연맹 지역본부와 함께 상경할 예정이다.

본대회에서는 특수고용·이주노동자·공공부문·일반노조·사내하청·건설일용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총망라한 6개 영역을 대표해 각 부문의 실상과 핵심 요구를 선포한다.

이와 함께 2003년 10월2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렸던 종묘공원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한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 이용석 열사 정신을 기리는 ‘이용석 열사 노동자상’ 수상식도 진행된다. “이용석 노동열사 정신계승사업회”가 제정한 노동자상은 '04년부터 매년 비정규투쟁의 모범을 만들어온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해 왔으며, 올해로 4번째 수상식을 맞았다.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는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본대회를 열고 오후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사정신 계승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문화제”를 개최한다.

투쟁문화제에서는 학습지 교사, 르네상스호텔 파견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기륭전자 사내하청, GM대우차 부평공장 사내하청, 광주시청 청소용역 노동자, 비정규직 교수 등이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파업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쟁취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모범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이어진다. 이날 대회에는 수원풍물패, 서기상, 최도은, 류금신, 좋은친구들, 노래공장, 박준, 연영석, 김호철 등 문예활동가들, 그리고 문화예술 비정규노동자들인 국립극장과 경기예술단 등이 출연해 공연을 펼친다.

전비연은 “비정규투쟁은 노무현 정권의 집중탄압으로 가장 많은 구속자가 나오는 영역”이라며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노동자들, 최근 출소한 노동자들, 신자유주의에 신음하며 죽음의 고통에 처해 있는 노점상, 예비 비정규직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도 자신의 얘기를 쏟아낼 것”이라고 밝혔다.<특별취재팀>

[표시작]

<b>◆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5대 요구</b>

<b>1. 기간제 사용사유 엄격제한 쟁취</b>=기간제 노동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간제 사용의 엄격한 사유제한을 요구하며, 상시적 업무에 투입된 기간제 노동자들은 전원 정규직화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비정규악법의 시행과 더불어 전면화되기 시작한 자본가들의 외주화·용역화·아웃소싱에 맞서 싸울 것이며, ‘무늬만 정규직’인 분리직군제·무기계약 전환이 아니라 완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b>2. 파견법·기간제법 철폐</b>=파견법 자체가 비정규직 고통을 양산하는 ‘시대의 악

법'이다. 지난해 강행통과된 기간제법 또한 집단해고와 외주화·아웃소싱을 진두지휘하는 악법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법안의 몇가지를 손질한다고 개선될만한 법안이 아니며,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완전 철폐만이 비정규직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우리는 불법파견에 대한 완전한 정규직화와 불법파견을 행한 자본가들의 형사처벌을 요구한다.

**<b>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b>=화물지입차주, 레미콘기사, 덤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은 '특수한 노동자'가 아니라 똑같은 노동자일 뿐이며, 따라서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노동3권을 온전히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0월10일 국가인권위도 노동조합법 적용과 4대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우리는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또다시 멀쩡한 노동자들을 '유사근로자'로 이름 붙이며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싸울 것이다.**

**<b>4. 원청사용자책임 인정</b>=건설 다단계 하도급, 공공부문 민간위탁, 제조업 사내 하청 등 이른바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은 모두 원청 자본이 결정하고 있기에, 원청 자본이 바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실사용자이다. 이에 우리는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노동조건과 노조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용주인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투쟁할 수 있는 권리인 '원청사용자책임 인정'을 요구한다.**

**<b>5.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쟁취</b>=현재 2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극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불법체류자라는 딱지까지 붙여 정부의 살인적인 단속·추방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우리는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반대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저항할 수 있는 기본권, 노동허가제(노동비자) 도입을 통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합법화를 요구한다.**

[표끝]

[관련기사]



좋아요  
0



훈훈해요  
0



슬퍼요  
0



화나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투쟁!  
0



# 기사제보 최신기사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노동부 가이드라인  
저지 부산노동청 릴레이



“침례병원 8년 이제는 매  
듭을 짓자” 시민사회, 침례



세종호텔 고공농성 280  
일, 서비스연맹 “복직안 마



尹정부 공공성 파괴 정책,  
끝나지 않아... “혁신 가이



한전KPS 비정규직, “한전  
KPS는 불법을 멈춰라”



기업은행서비스지부 “자  
회사 간 차별 철폐·저임금

## 조직별 소식

민주노총	산별조직&지역 본부	사회연대단체
------	---------------	--------

## 주제별 소식

현장투쟁	공공부문	비정규직
생명안전	최저임금	차별철폐
국제연대	정치정책	통일역사
인권여성	언론교육	의료돌봄

### 현장 인터뷰

### 사진&영상

### 카드뉴스

## 오피니언

민주노총 조합원 이야기  
민주노총 대변인 브리핑  
이송희일의 영화직설  
명인의 동지로 만나는 페미니즘

## 지난 오피니언

주간브리핑

노동과세계 특보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선전실

대표전화 : 02-2670-9100

팩스 : 02-2635-1134

제호 : 노동과세계 | 발행일 : 1997-03-18 | 발행인 : 양경수 |

편집인 : 김진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경수

일반주간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09964 | 등록일 : 2010-03-04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 05111 | 등록일 : 2018-04-16

노동과세계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2025 노동과세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ctu.news@gmail.com](mailto:kctu.news@gmail.com)

POWERED BY **NE**